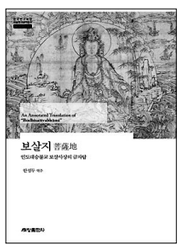
‘보살’의 정신 수행 훈련, 목표 등 정리

보살지

안성두 역주 | 세창출판사 펴냄 | 3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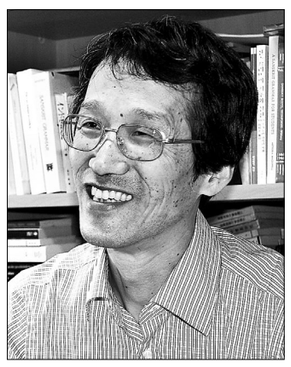


보살지(菩薩地)는 대승보살의 수행과 훈련, 목표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술한 첫 번째 문헌으로서, 4세기 중반에 인도서 편찬된 유식학파의 최초기 작품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보살의 정신 수행의 기초 또는 단체를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이는 대승불교 보살사상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사상사에서 매우 획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으로서 ‘보살’이 가진 중요성 때문에 이 텍스트는 인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티벳불교서 매우 중요시됐다. 그것은 〈보살지〉가 5세기 초 두 번에 걸쳐 한역됐으며, 최종적으로 현장에 의해 ‘유가사지론’ 일부로서 번역된 사실에 의해서도 방증이 된다.

〈보살지〉는 “모든 보살들의 훈련의 길과 모든 종류의 훈련의 길의 결과를 설하기 위해 건립된 것”이라는 기술이 보여주듯이, 보살지는 “보살의 정신적 단계” 또는 “보살의 정신적 기초”의 의미를 갖고 있다. ‘보살’을 위한 수행의 기초라는 제명이 보여주듯 이 문헌은 아비달마문헌과는 다른, 대승불교에서의 보살이념과 수행법, 종교적, 철학적 지향을 보여주며 이를 종합화하고자 시도한다. 이 성격을 가진 〈보살지〉는 독각(獨覺)의 종성과 발심(發心) 수행(修行) 득과(得果)를 밝히고 있는데 네 유가처로 나누어 설한다.

첫째, 지유가처(持瑜伽處)에서는 종성발심 자타리(自他利- 자신과 타의 이익) 진실의(眞實義) 위신력(威神力) 성숙(成熟) 보리(菩提) 역종성(力種姓) 시(施) 계(戒) 인(忍) 정진(精進) 정려(靜慮) 혜(慧) 섭사(攝事) 공양친근무량(供養親近無量) 보리분(菩提分) 보살공덕(菩薩功德)의 18 품을 세워 널리 보살이 배워야 하는 인과를 설한다. 둘째 지수법유가처(持隨法瑜伽處)는 보살상(菩薩相) 분(分) 증상의락(增上意樂) 주(住)의 4 품(品)을 세워 보살의 방편가수(方便起修- 방편을 일으켜 닦음)의 상(相-모습)과 주위(住位- 머무르는 지위) 등을 밝히고 있다. 이어 셋째의 지구경유가처(持究竟瑜伽處)는 생(生) 섭수(攝受) 지(地) 행(行) 건립(建立)의 5 품을 세워 보살이 구경의 방편으로 행하는 신통과 그 행위 등을 말한다. 마지막 넷째의 지차제유가처(持次第瑜伽處)는 발정등보리심품(發正等菩提心品)을 세워 보살지의 수행을 일으키는 차례를 약설한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런 〈보살지〉를 저자가 처음 접한 것은 한국학대학원 시절 故 이기영 박사로 부터였다고 회고한다. 이 책의 머릿말에서 이기영 박사는 원효사상의 이해를 위해 〈보살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자신의 낮은 이해력 때문에 당시엔 통독할 엄두를 못냈다고 술회했다. 이런 저자에게 〈보살지〉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좋겠다는 계기가 생긴다. 1989년 독일 함부르크대로 유학을 떠난 저자는 인도불교를 공부하면서 주로 〈유가사지론〉을 위시한 초기유식문헌을 중심으로 읽을 기회를 자주 갖게되면서부터이다. 조금씩 인도 유식학에 대한 이해가 넓혀지면서 저자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거 저자는 생각했다. 이 책이 번역된다면 한국불교계에 큰 도움이 될 거란 확신이 들었다.



대승보살 수행 체계적 기술한 문헌
5세기 초 두 번에 걸쳐 한역
보살지, 네 유가처로 나누어 설명

저자〈사진〉는 책의 머리말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힌다. “이 책은 대승이 다시 흥기할 무렵, 무엇이 대승불교도의 열정을 불러 일으켰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1년 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고전명저 번역사업의 지원을 통해 비로소 〈보살지〉를 번역할 기회를 얻었다. 저자는 “이미 산스크리트어로 편찬된 두 권의 편집본이 있기에 이를 저본으로 해서 온전한 우리말 번역을 시도한 것이지만, 필요한 경우 티벳역을 참조해 보완하려 했다. 그리고 가능한 직역을 위해 노력했지만, 구문적인 문제와 의미론적 맥락서 이해의 문제가 야기될 경우 의미를 살리는 편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자는 그간의 어려운 점도 털어놓았다. “장문의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보살지〉를 온전히 번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여러 번역상의 오류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책은 총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네 유가처의 설명을, 〈보살지〉 해설편으로 밝힌 제 2부에서는 불교사상사에서 〈보살지〉의 위치를 비롯해 〈유가론〉과 〈보살지〉의 구성 등을 수록해 놓았다. 부록으로 쓴 〈보살지〉에 나온 산스크리트 용어의 번역도 이 책을 읽는데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역자인 안성두 교수는 독일 함부르크대학서 인도불교를 공부하고, 유가사지론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했다. 금강대 연구원과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인도불교철학을 강의하고 있다. 연구분야는 유식학을 중심으로 한 인도불교와 티벳불교 분야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일본 근대문학의 본질은?… 근대적 자아의 자각과 확립

일본 근대 불교문학사상과 죽음

조기호 지음 | 지식과교양 펴냄 | 2만9천원



일본 근대문학의 본질은 근대적 자아(自我)의 자각과 확립에 있다고 일컬어져 왔다. 나아가 그 본질은 당시의 불교를 비롯한 신토(神道)와 유교, 기독교 등 각 종교의 비합리적 요소를 배제해 나갈 수 있는 역할도 했다. 이 같은 관점서 일본 근대문학사를 살펴보면, 다이쇼 시대에는 여러 종교를 기초로 한 사상적(思想的) 제재(題材)의 문학작품이 부쩍 많이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근대’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문학’의 일면을 논하자면 기독교 문학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서도 불교 쪽의 문학이 ‘근대적인 불교문학’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당시 소위 ‘신란(親鸞) 붐’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같이 일본의 근대 불교문학사상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에서는 거의 연구된 일이 많지 않았다. 이런점에서 일본의 불교문학이나 불교사상이 활발했던 다이쇼시대(1912~1926) 중심 문학가인 구라타 햐쿠조(1891~1943, 이하 구라타)의 불교적 문학사상과 ‘죽음’에 관한 연구는 가치있는 일로 여겨진다. 일본 교토소재 붓코대학 대학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일본통인 저자가 구라타의 작품 속에서 ‘죽음’이란 화두이자 키워드에 천착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저자는 특히 그의 희곡인 〈출가와 그 제자〉, 수필평론 〈사랑과 인식의 출발〉 등 두 작품에서 불교문학사상을 고찰하고, 그와 관련된 ‘죽음의식’을 도출했다. 저자인 구라타가 당대에 ‘자살충동’을 느끼면서도 다양한 종교적 체험 특히 정토진종에 입각해 자살을 극복해 나간점은 현대인들도 참고할만 하다. 구라타는 정토진종 가문서 태어나 그 영향을 받았지만 기독교와 이토엥이라는 여타의 종교적 체험을 얻은 후 다시 정토진종이라는 불교로 자신의 종교를 거듭 바꾼 특이한 종교관을 갖고 있다. 정토진종의 출현과 더불어 성립된 ‘신란사상’은 오늘날에도 일본에서는 그 보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구라타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젊은 나이에 구라타는 계속되는 실연을 당하고 염세적 성향을 갖게 된데다 결핵을 앓고 지냈다. 물론 그는 이런 과정속에서 ‘이토엥’을 방문, 창립자 니시다텐코에 크게 감동해 스승을 삼기도 했다. 구라타는 정토가문서 태어난 니시다텐코와 니시다키타로로부터 불교사상의 하나인 ‘신란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구라타는 다른 문학사상가와 비교해볼 때 ‘자살’에 대한 충동 즉 ‘죽음’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의식이 남달리 강했다. 그것은 일본 근대문학사를 통해 볼 때 적잖은 유명 문학가들이 각각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 자살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극명하게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는 인명경시풍조가 만연된 가운데 생명(목숨) 관련 각종 사건사고가 적잖았던 당시 상황서 수회에 걸친 ‘자살충동’을 느끼면서도 정토진종이라는 불교 등에서 얻은 사유방식에 힘입은 바가 크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구라타의 ‘죽음의식’을 이렇게 요약한다. “생명은 사랑을 낳고 또 그 사랑을 하면 죽음이 기다리며, 사후에는 왕생할 수 있다”고 말이다.

김주일 기자

한 생각에 맑은 마음 깨우침을 주네

진심직설

보조지눌 지음 | 원순 스님 역해
법공양 펴냄 | 1만2천원



진심(眞心)은 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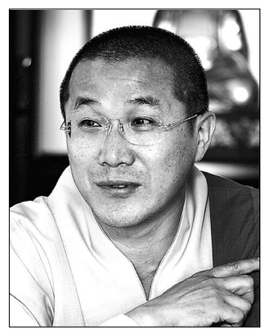
진심(眞心)은 대도(大道)의 근원이며, 진법(眞法)의 핵심이다. 진심을 알지 못하는 중생들은 방황하고, 진법의 마음자리를 찾아 헤맨다. 승려들이 참구하는 것도 바로 이 마음이다. 조계총림 송광사 중흥조 보조지눌(1158-1210)은 ‘중생이 갖추고 있는 부처님의 참마음’을 바로 눈앞에 펼쳐 보이기 위해 진심직설을 집필했다. 선사들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할’이 되는 깨달음을 일반 불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보조지눌 스님의 진심직설을 역해한 원순 스님〈사진〉도 이같은 맥락으로 진심직설을 펴냈다. 명료한 번역과 해석으로 독자들의 진심을 깨우쳐, 다른 이들의 맑은 마음도 깨우침을 줄 수 있는 불제자로 거듭나길 바라는 원순 스님의 서원이 담겨 있다. ‘참마음이란 무엇인고?’라는 원순 스님의 진심직설 부제목처럼, 진심직설은 참마음을 알아가는 화살이다.

진심(眞心)은 어디에?

진심직설서 말하는 참마음은 부처님 마음이다. 중생의 망념 속에 시비 · 분별하는 마음이 아니라, 중생의 무명을 없앤, 수행납자의 화두가 타파된 깨달음으로서 참마음을 의미한다. 이 참마음은 보는 인연과 바탕에 따라 미묘한 쓰임새가 존재하는데, 항상 변함없이 있는 것이지만 먹장구름 같은 망념에 눈이 가려진 중생들은 자신의 참마음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 이 참마음을 보기 위한 방편으로 보조 스님은 열 가지 수행법을 나열했고, 인연에 맞는 자신의 수행 방편을 찾아 공부하기를 당부했다. 참마음은 행주좌와 모든 삶 속에 있으므로 자신의 마음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불생불멸의 영원한 것으로, 시방세계가 오직 하나의 참마음일 뿐이요, 지금 이 자리서 영원할 뿐임을 말해 준다. 이 마음을 알아야 비로소 부처님의 영원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원순 스님의 명확한 진심직설

원순 스님의 진심직설은 ‘참마음을 알아야 바른 믿음’에서부터 ‘망념을 벗어나 참마음을 이루는 수행법’ ‘시방세계가 오직 하나의 참마음일 뿐’에 이르기까지 15가지 주제로 ‘참마음’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했다. 또한 정확한 번역과 역주를 달아 독자들이 선사들의 질문과 대답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예를 들자면, 보조스님의 마지막장인 ‘참 마음이 가는 곳’에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질문〉 참 마음을 통달치 못한 사람은 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선악을 짓습니다. 선의 인을 짓기 때문에 좋은 세계에 나고 악의 인을 짓기 때문에 나쁜 세계에 들어가는데, 업에 따라 상을 받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아는 사람은 망상이 모두 없어지고 진심에 계합하여 선악의 인이 없을 것이니, 그렇다면 죽은 뒤에 그 영은 어느 곳에 의탁합니까?(…중략)

규봉은 ‘일체중생이 모두 신령스런 밝은 깨달음의 성을 갖춰 부처와 다름이 없으므로 만일 그 성이 곧 법신임을 깨치면 본래 태어남이 없거든 무슨 의탁할 곳이 있겠는가. 신령스럽게 밝아 어둡지 않고 항상 분명히 알며 어디서 온 곳도 없고 어디로 갈 곳도 없다. 다만 비고 고요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삼고 허망한 생각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말아라.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저절로 그 없이 엎매지 못할 것이요, 혹 중음이 있더라도 향하는 곳마다 자유로와서 하늘과 인간에 마음대로 의탁할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이 곧 죽은 뒤에 참 마음이 가는 곳이다. 라고 썼다. 반면 원순 스님은 마지막 장을 ‘시방세계가 오직 하나의 참마음일 뿐’이라는 핵심을 짚어줌으로써 진심직설의 핵심을 짚었다.

진심직설 참마음… 부처님 마음
15주제로 ‘참마음’ 논리적 해설

참사람의 향기로운 삶을 살고자

원순스님은 서문에서 “참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팔만대장경을 모두 챙겨 읽어도 읽은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참마음을 환희 깨쳐야 팔만사천 법문을 알고, 비로소 진심직설을 바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세상으로 건너가는 그날까지, 참사람의 향기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진심직설을 손에서 놓지 말고 옛 선사의 게송을 늘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고 의의를 밝혔다. 원순스님의 진심직설은 한 생각의 맑은 마음에 깨우침을 전한다.

김주일 기자

디자인 등록원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현 불 샵 단독입점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형	(大) 15.5㎝×7.5㎝ (小) 11.7㎝×5㎝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